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탄력... 도의회 통과

제377회 임시회 어제 폐회... 17일간 일정 마무리 환경평가 동의안 가결... 서귀포의료원 청원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조례안·동의안·청원을 심사한 17일간의 제37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31일 속개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등 7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 가운데 해양환경 파괴 및 해수욕장 경관사유화 논란 속 장기 표류해온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도의회는 이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제주분마 이호랜드(주)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부지에 1조641억원을 투자해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제주시가 '제주해양관광패러디타운 기본계획(1996년 6월~2000년 1월)'을 수립하면서 사업이 시작된 뒤 2002년 4월 이호유원지(16만4000㎡)로 최초 지정고시됐다. 2005년 통합(환경·교

통) 영향평가 제주도의회 동의에 이어 2009년에는 공유수면 매립 공사가 완료됐지만 이후 생태계 파괴 논란과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된 뒤 표류해오다 올해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앞서 환경도시위원회는 부대의견으로 ▷지역주민과의 상생협약 방안 마련 추진 ▷관련부서가 주도해 경관협정을 체결해 추진 ▷호텔 및 콘도의 층수를 1개층 낮추 추진 ▷카지노 사업과 관련 확인서(운영계획 없음)에 명시된대로 이행 ▷사업부지 인접 국·공유지를 포함해 도민 이용

이 자유로운 공공형 공원을 관련부서와 협의해 조성 ▷해안 사구의 변형 모래 유실 등 지속적 모니터링 등 17가지를 제시하며 원안 가결했다.

이와함께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청원'의 건도 채택됐다.

앞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기관별 입장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과제에서 제시된 방안을 종합해 서귀포의료원 선진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청원의 건을 채택했다.

좌남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되면서 제주

지역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교육 및 산학연 연계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회기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내 카지노사업장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형화하겠다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의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의결하면서 사실상 부결 처리됐다. 또 제주지역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핀 고양이 조례'인 '제주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은 심사보류되며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른기자 eioh@ihalla.com



지난달 3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태석 의원이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문대림 JDC이사가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2박4일간 말레이시아를 방문. 탄스리 버자아그룹 회장과 만남을 가졌다.

문대림 이사가 말레이시아로 간 이유

JDC-버자아 두 수장 만나 예래단지 소송 관련 협의 "갈등 지속되면 서로 상제"

예래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4조 40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및 3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말레이시아 버자아그룹의 두 수장이 최근 만난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7일부터 20일까지 2박4일간 문대림 이사장과 손봉수 기획조정실장 등 JDC 관계자 4명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했다. 목적은 예래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이하 예래단지)과 관련 탄스리 버자아그룹 회장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다.

첫 만남은 18일 쿠알라룸푸르 소재 '버자아 타임스 스퀘어'에서 2차례 이뤄졌으며, 1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1차례 협의가 진행됐다. 협의 과정에서 JDC 측은 예래단지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양 측 모두에게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버자아 측의 '전향적 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버자아 측에서도 예래단지와 관련된 입

장을 JDC 측에 전달했다.

예래단지는 버자아그룹이 2조5000억원을 투자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서귀포시 예래동 소재 74만1000㎡ 부지에 숙박과 의료, 상가 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하지만 2015년 3월 대법원이 예래단지 인가처분·토지 수용재결을 모두 무효로 판단함에 따라 같은해 7월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후 버자아그룹은 2015년 11월 6일 "JDC가 토지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를 유지했다"며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서울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서 맡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이 진행된 상태다.

아울러 올해 7월 17일에는 버자아그룹이 4조4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주장하며 우리 정부에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중재가 성사되지 않으면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하는 방법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문대림 이사는 "예래단지 문제를 풀기 위해 탄스리 회장을 직접 만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다만 갈등이 지속될 경우 서로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서귀포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수시분)를 31일 결정·공시하고, 한 달 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 토지로 도로, 구거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총 4888필지이다.

시는 오는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또는 각 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받게 된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국제전기차엑스포-중국전기차 100인회 MOU

"한·중 미래차산업 발전에 공동 협력"

(사)국제전기차엑스포(이사장 김대환)는 중국전기차 100인회(ChinaEV100, 이사장 친칭타이)와 '한중 EV 포럼' 공동 개최를 비롯 국제전기차엑스포 공동 협력과 MOU 체결 등으로 한 기본 합의를 함으로써 양측 간 본격 협력의 물꼬를 틀게 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사)국제전기차엑스포 강성 후 사무총장은 지난달 26일 중국 저장성 후저우시 국제컨벤션센터(DICC) 개관 기념으로 개최된 2019 GFM(Global Future Mobility

Conference)에서 중국전기차 100인회 장영웨이 비서장과 회담을 갖고 양측이 전기차 등 한중 미래차 정책 공유 및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중국전기차 100인회가 매년 1월 중국 공업정보부, 과학기술부, 교통운수부, 환경보호부 등 6개 관련부처, 연구기관 및 기업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국 미래차 정책에 대해 조율 및 공유하는 '중국 베이징 조어대 미래차 정책포럼'에서 한국과 중국의 미래차 정책과 산업

간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중 EV 포럼'을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중국전기차 100인회가 주최하는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釣魚台) 미래차 정책포럼에서는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등 전동화 시대의 핵심산업인 배터리 산업을 주제로 양국 정부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1회 한중 EV 포럼' 개최와 공동협력 MOU도 체결하기로 했다.

장영웨이 비서장은 내년 제7회 엑스포(4.29~5.2,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조직위원회 고문 위촉을 수락했으며, 이 기간 개최되는 세계전기차 협의회(GEAN) 총회에서 중국 미래차 정책 및 산업 동향과 협력 방안 주제 발표에 합의했다.

조성윤기자 sycho@ihalla.com

9일 꽃자왈 혼디모영 마을축제

제주꽃자왈도립공원과 대정읍 신평리마을회는 이달 9일 도립공원 주변 신평리 주민들과 영어교육도시 이주민들이 함께하는 '꽃자왈 혼디모영 마을축제'를 연다.

'꽃자왈, 걷고 그리고 느끼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리는 행사의 1부는 '힐링 in 꽃자왈'로, 꽃자왈도립공원을 걸으며 토크 콘서트와 숲속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신평꽃자왈생태체험학교로 자리를 옮겨 진행되는 2부는 '나눔 in 꽃자왈'이다.

플리마켓도 운영하는데 셀러 모집 등 문의는 제주꽃자왈도립공원(064-792-6047)으로 하면 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4·3사건 관련 복지 지원 및 유족증 발급 안내

제주4·3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실질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보조비 신청, 희생자 및 유족증 발급 등 복지지원 안내사항입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1. 복지 내용

- **생존자 의료비** : 생존희생자로 결정된 자
 - 의료비(도내 지정병원, 약품대 및 입원비 본인 부담 100% 지원)
 - 장제비(300만원 지급)
- **생활보조비** : 생존희생자 및 희생자 배우자.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
 - 생존희생자 7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 30만원, 유족 10만원 매월 지원
 - ※ 신청방법 : 도내 거주자(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희생자 본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
- **유족 진료비** : 1954년 유족까지 지원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비급여 본인 부담 단, 본인부담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머느리 진료비** : 1954년생 머느리까지 지원(자부만 해당됨)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비급여 본인 부담 단, 본인부담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2. 기타 복지혜택

- **항공할인** : 제주항공(생존희생자 50%, 유족 30%, 제주기점에 한함)
- **주차료 감면(생존희생자 및 유족)** : 50%
 - 도내 공영주차장,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2부두), 제주항공국제여객터미널(7부두)
 - 절물자연휴양림(생존희생자 면제), 한리산국립공원(면제), 한리수목원(면제)

- **관람료 무료(생존희생자 및 유족)** :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관람료
- **화장장 사용료 무료(희생자)** : 양지공원(화장 및 안장비)
- **독감 무료 예방 접종** : 매년 10월경 ~ 백신 소진시까지
 - 도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3.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

- **4·3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 안내**
 - 지원대상 : 제주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생존희생자 및 유족
 - 신청접수 : '19. 4. 1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도내 거주자(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희생자 본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 국외거주자(제주도 4·3지원과)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위임장,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2매(3×4)
 - ※ 신청서 : 읍면동 및 도청 홈페이지 "유족증" 클릭

4. 문의처

- **제주도청 4·3 지원과 064)710-8434~6**
- **생활보조비** : 제주자치도 읍·면·동사무소(생활보조비 담당)
- **생존희생자, 유족진료비, 머느리진료비** : 제주4·3평화재단 064)723-4309, 4340